

잡아함 131. 습색경

날짜: 3월 27th, 2025

출처: <http://www.dhamma.kr/wp/?p=17760>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사위국 기수급고독원에 계시면서 여러 비구들에게 말씀하시었다.

“만일 사문이나 바라문으로서 물질을 친하는 사람은 악마의 마음대로 되고 악마의 손에 들어가며, 악마의 하고자 하는 대로 되고 악마에게 결박되며, 악마의 엉맺음을 벗어나지 못하나니, 느낌·생각·지어감·의식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같느니라. 만일 사문이나 바라문으로서 물질을 친하지 않으면, 그런 사문이나 바라문은 악마의 마음대로 되지 않고 악마의 손에 들어가지 않으며, 악마의 하고자 하는 대로 되지 않고 악마의 결박을 벗어나며, 악마의 엉맺음을 벗어나고 느낌·생각·지어감·의식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같느니라.”

부처님께서 이 경을 말씀하시자 여러 비구들은 부처님 말씀을 듣고 기뻐하여 밭들어 행하였다.

‘이와 같이 친하는 사람·집착하는 사람·맛들이는 사람·결정코 집착하는 사람·머무르는 사람·불리는 사람·가는 사람·가리는 사람·버리지도 않고 뱉지도 않는 사람, 이와 같은 사문이나 바라문들도 악마의 마음대로 되는 것이 위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다.’

본 문서는 dhamma.kr에서 수집한 내용입니다.